

## 시김새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학년 28~29쪽
제재명	민요의 시김새	지도서	4학년 286~287쪽

### 1. 시김새의 정의 및 종류

시김새는 우리나라 음악의 멋스러움을 더해 주는 표현 방법으로, 어떤 음에서 소리가 변화하여 생기는 모양새를 말한다. 다른 말로 농음(弄音), 농현(弄絃)이라고도 한다. 시김새는 서양의 앞꾸밈음이나 장식음 등과는 달리 소리 자체가 변화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시김새는 단순한 소리의 휘어짐 현상이 아니라 휘어지거나 끊어지듯 이어지는 소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의 세기와 힘의 가감 현상이다.

시김새에 대한 문헌상으로 전해지는 종류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 떠는소리(요성), 흘러내리는 소리(퇴성), 밀어 올리는 소리(추성), 구르는 소리(전성) 등이다. 이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복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판소리나 민속악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되고 있다.

### 2. 시김새 지도를 위한 악보

우리 음악을 지도할 때에는 우리 음악의 특징에 맞는 악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요는 구전심수(口傳心授)로 전해져 왔으므로 악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가락의 흐름과 시김새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락선 악보가 가락과 시김새를 익히는 데 효과적이다.

### 3. 손을 사용한 시김새 지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박을 짚거나 시김새를 표현할 때 손을 많이 사용하였다. 조순자 명인(가곡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은 시조나 가곡을 부르면서 ‘양수지박(두 손으로 박을 짚는 것)’ 하기도 하고, 박기종 명창(서도 소리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과 성우향(판소리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 역시 손으로 표현하여 소리의 변화를 시각화하며 지도하였다.

시김새가 뚜렷한 수심가토리(또는 서도 민요)와 육자배기토리(또는 전라도 민요)의 민요 지도에 있어서 손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악곡들은 단순한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현 음이 적다. 따라서 손을 이용하여 시김새를 익히는 방법이 시김새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손을 이용하여 시김새를 표현하는 것을 ‘손시김’이라고 부른다.

떠는소리는 소리가 위로 향하여 떠는소리이므로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하여 손을 위로 향하여 흔들며 부른다. 종종 떠는소리를 표현할 때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예도 있는데 손을 펴서 떨어주는 것이 막히지 않고 공명이 되는 실제 소리에 가깝다.

흘러내리는 소리는 손끝이 위로 향하여 세워 있다가 끝에만 살짝 손 전체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 동작을 한다. 꺾는소리처럼 손가락 관절만 아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있던 손을 아래로 기울이는 것이다.

밀어 올리는 소리는 소리 자체가 처음부터 위를 향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끝만 살짝 올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손시김 자체도 손등을 위로 하여 음의 끝에서 위로 완만하게 올려 주는 동작을 한다.

꺾는소리는 엄지만 위를 향해 펴고 주먹 쥔 오른손을 90도 이상 거꾸로 뒤집으면서 손으로 표현한다. 흘러내리는 소리가 천천히 하행하는 것이라면 꺾는소리는 재빨리 아래로 하행한다. 따라서 꺾는소리를 흘러내리는 소리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손시김은 반드시 정해진 손동작으로 시김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과 새롭게 정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적용할 수 있다.



▲ 떠는소리 손시김



▲ 흘러내리는 소리 손시김



▲ 밀어 올리는 소리 손시김



▲ 꺾는소리 손시김

## 리코더 시<sup>b</sup> 운지법 연습곡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학년 34~35쪽
제재명	시 <sup>b</sup> 운지법	지도서	4학년 292~293쪽

### 1. 시계

보통 빠르게

작사자 미상 | 나운영 작곡

1. 시계는 아침부터 똑 딱 똑 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 딱 똑 딱  
2. 시계는 밤이 돼도 똑 딱 똑 딱 시계는 밤이 돼도 똑 딱 똑 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 딱 똑 딱 부지런히 일 해요  
모두들 잠을 자도 똑 딱 똑 딱 쉬지 않고 가지요

### 2. 오라 리(Aura Lee)

조금 느리게

포스틱 작시 | 폴턴 작곡

As the black-bird in the spring neath the wil - low tree

sat and piped I heard him sing prai - sing Au - ra Lee

Au - ra Lee Au - ra Lee Maid of gold - en hair

sun-shine came along with thee and swal - lows in the air

## ‘피터와 늑대’ 악곡 해설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학년 38~39쪽
제재명	피터와 늑대	지도서	4학년 296~297쪽

### 1. 프로코피예프(Prokofiev, Sergei Sergeevich / 1891~1953)



러시아의 작곡가로, 어려서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9살 때 오페라 작곡을 시도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들어가 립스키코르사코프에게 작곡, 피아노, 지휘, 음악이론 등을 배우고 복잡한 화음과 힘찬 리듬으로 된 근대적 작품으로 명성을 떨쳤다. 1914년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여 루빈스타인 상을 받았으며, 1918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대표 작품으로는 발레곡 “로미오와 줄리엣”, 오라토리오 “평화의 수호”, “제7교향곡” 등이 있다.

### 2. 피터와 늑대(Peter and Wo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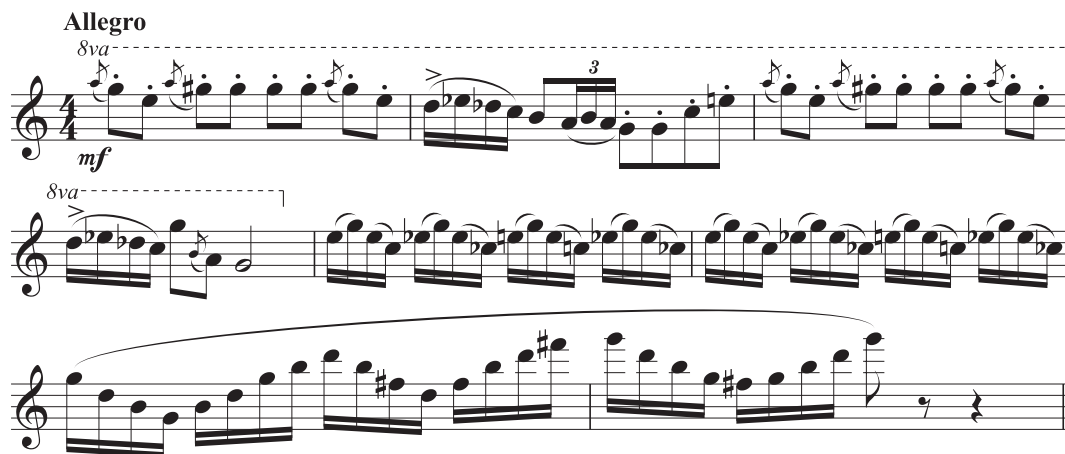
이 곡은 프로코피예프가 초기에 시도한 근대 음악적인 대담한 수법에서 탈피하고, 차차 전통적인 음악 기법 사용과 순수 기악 음악을 떠나 극음악이나 표제 음악으로 향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해설과 오케스트라를 염두에 두고 작곡된 것으로, 프로코피예프는 전체 줄거리와 해설, 음악 모두를 맡아서 1936년 4월, 단 2주 만에 30분 길이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하나의 이야기에 따라 관현악이 연주해 가는 형식을 취했으며,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음악의 처음에 소개된다. 등장인물별 주요 가락은 다음과 같다.

출처 서희태,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수업 100”, 이케이북, 2015, 154~1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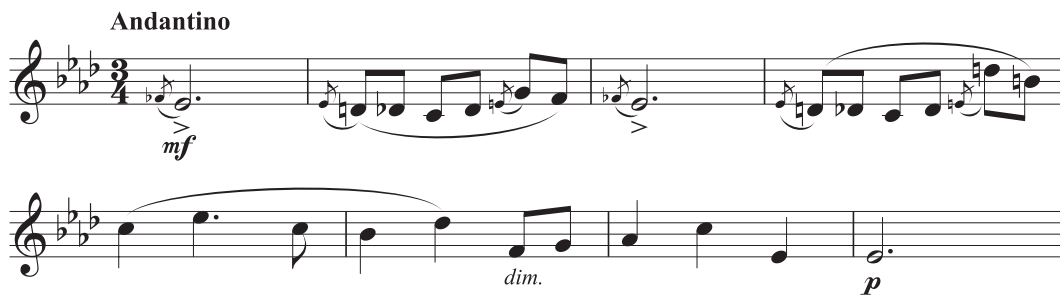
#### (1) 피터(현악기군)



#### (2) 새(플루트)



(3) 오리(오보에)



(4) 고양이(클라리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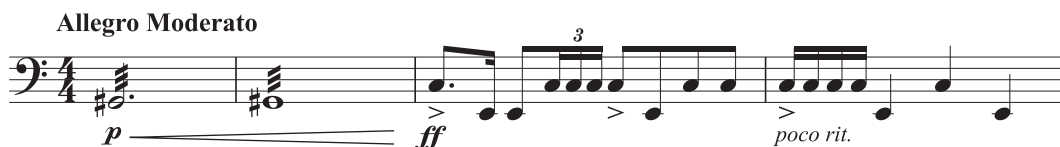
(5) 할아버지(바순)



(6) 늑대(호른 3대)



(7) 사냥꾼의 총소리(팀파니와 큰북)









출처 편집부,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일송미디어, 2005, 12~33쪽.

## ‘피터와 늑대’ 관련 자료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학년 38~39쪽
제재명	피터와 늑대	지도서	4학년 296~297쪽

①		<p>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과 동물은 오케스트라의 악기로 연주됩니다. 새는 플루트로, 오리는 오보에로, 고양이는 클라리넷으로, 할아버지는 바순으로, 늑대는 세 대의 호른으로, 피터는 현악 4중주(현악기군)로 그리고 총소리는 팀파니와 큰북으로 연주합니다.</p>
②		<p>어느 이른 아침 피터는 문을 열고 숲으로 나갔습니다.</p>
③		<p>커다란 나뭇가지 위에 피터의 친구인 작은 새가 앉아 있었어요. “온 세상이 너무 조용해!” 새가 유쾌하게 말했습니다.</p>
④		<p>피터 뒤로 오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오리는 피터가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알고는 기뻐했어요. 숲 속의 작은 연못에서 수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리를 보자 작은 새는 폴발로 내려앉아 자리를 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슨 새가 날지도 못하니?”, “너는 무슨 새가 수영도 못하니?” 오리는 연못 속으로 퐁당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툼 뒤, 오리는 수영을 계속 하고 작은 새는 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p>
⑤		<p>그때 피터는 고양이 한 마리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수다 떨고 있는 저 새를 잡아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양이는 살금살금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해!” 피터가 소리치자 새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리는 연못 속에서 고양이에게 화가 나 짹짹거렸습니다. 고양이는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생각했어요. ‘내가 저렇게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저리로 올라가면 저 새는 벌써 날아가 버릴텐데.’</p>
⑥		<p>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피터가 밖으로 나가서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이곳은 위험한 곳이야. 늑대가 숲에서 나오면 어찌려고 그러느냐!” 피터는 할아버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피터 같은 용감한 소년은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피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시고는 문을 꼭 잠갔습니다.</p>

<p>⑦</p> 	<p>피터가 집으로 들어간 그 순간 숲에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리는 껍뻍거리며 흥분하여 연못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빨리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리는 늑대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늑대는 오리를 잡아서 꿀꺽 삼켜 버렸습니다.</p>
<p>⑧</p> 	<p>그동안 고양이는 나뭇가지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고양이와 조금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제 늑대는 나무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욕심에 찬 눈으로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p>
<p>⑨</p> 	<p>그러는 동안 피터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집으로 들어가서 밧줄을 가져와서 높은 돌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늑대가 어슬렁거리며 돌고 있는 나무의 가지 하나가 그 돌담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가지를 붙잡고 피터는 가볍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피터가 새에게 “새야, 날아 내려가서 늑대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빙빙 돌아.” 새가 늑대 머리 위에 닿을 정도로 날아다니자 늑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p>
<p>⑩</p> 	<p>그동안 피터는 올라가미를 만들어 조심스럽게 늘어뜨려서 늑대 꼬리를 넣고 있는 힘껏 잡아 당겼습니다. 자기가 잡힌 것을 알자 늑대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꼬리를 묶은 밧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p>
<p>⑪</p> 	<p>바로 그때, 사냥꾼들이 숲에서 나왔습니다. 늑대의 발자국을 따라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나무 위에 앉아 외쳤습니다. “쏘지 마세요. 저희가 늑대를 잡았어요. 이제 늑대를 동물원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p>
<p>⑫</p> 	<p>당당한 승리의 행진에서 용감한 피터가 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이 늑대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행진을 끝맺은 것은 할아버지와 고양이였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피터가 늑대를 잡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p>

출처 Peter and the Wolf(조수미가 들려주는 음악 동화), Warner Music Korea Ltd, 2016.



## 일할 때 부르는 노래 노랫말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학년 40~41쪽
제재명	일할 때 부르는 노래	지도서	4학년 298~299쪽

### 1. 논 고르는 소리(어허라 어허헛가, 전라도)

느린자진모리장단

(메) 어허라 어허헛가 / (반) 어허라 어허헛가  
 (메) 가노라 간다 내 돌아간다 / (반) 어허라 어허헛가  
 (메) 입을 따러 내 돌아간다 / (반) 어허라 어허헛가

### 2. 모찌는 소리(몽치세 제치세, 충청도)

중중모리장단

(메) 몽치세 제치세 / 이모자리를 몽쳐 주오 / (반) 몽치세 제치세 / 에루화 못자리 몽치세  
 (메) 농천하지대본이라 / 이 농사가 제일 일세 / (반) 몽치세 제치세 / 에루화 못자리 몽치세  
 (메) 한 톨 종자 싹이 틔어 / 만 백성에 양식이니 / (반) 몽치세 제치세 / 에루화 못자리 몽치세

### 3. 모심는 소리(자진아라리, 강원도)

엇모리장단

(메) 심어주게 심어주게 / 심어주게 / 원앙에 줄모를 / 심어주게  
 (반) 아리아리 아리아리 / 아리랴오 / 아라리 고개로 / 넘어간다

### 4. 물 푸는 소리(옹헤야 넘어가네, 제주도)

중중모리장단

(메) 옹헤야 넘어가네 / (반) 옹헤야 넘어가네  
 (메) 이 물 퍼서 심으세 / (반) 옹헤야 넘어가네  
 (메) 풍덩풍덩 퍼올리세 / (반) 옹헤야 넘어가세

### 5. 논매는 소리(잘 하네 못 하네, 충청도)

중중모리장단

(메) 잘 하네 못 하네 / 예야후야 잘 하네 / (반) 잘 하네 못 하네 / 예야후야 잘 하네  
 (메) 잘 하기는 뭘 잘 해요 / 우리야 농부들 참 잘 하네 / (반) 잘 하네 못 하네 / 예야후야 잘 하네

### 6. 벼 터는 소리(치구치구, 강원도)

치구 치구 치구 치구 / 치구 치구 조조 / 조조조자  
 에 헤이야 헤이야 / 후 후후 / 후후

출처 한국민요대전 (주)MBC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www.urisori.co.kr, 2014.

## 다른 나라의 타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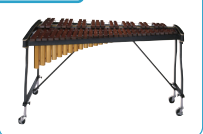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학년 42~43쪽
제재명	타악기 놀이공원	지도서	4학년 300~301쪽

### 1. 타악기의 분류

- (1) 연주 방법에 따른 분류: 손이나 채로 치는 타격형, 같은 물체끼리 부딪치는 합격형, 손가락으로 튕기는 소명형, 땅에 떨어뜨리는 낙하형, 서로 비비는 마찰형, 악기를 흔드는 진동형 등
- (2) 소재에 따른 분류: 나무, 돌, 금속, 흙, 가죽, 플라스틱, 유리 등
- (3) 음높이의 유무에 따른 분류: 음높이가 있는 것(실로폰, 글로켄슈필, 핸드벨, 팀파니, 차임, 마림바 등), 음높이가 없는 것(큰북, 작은북, 탬버린, 트라이앵글, 마라카스, 소리 막대 등)
- (4) 호른보스텔-작스(Hornbostel-Sachs)에 따른 분류
  - 막명 악기(가죽 막이 진동해서 소리 나는 방식): 팀파니, 드럼, 꽁가, 봉고, 탬버린 등
  - 체명 악기(몸체가 진동해서 소리 나는 방식): 마림바, 실로폰, 비브라폰, 글로켄슈필, 심벌즈, 캐스터네츠 등

### 2. 다른 나라의 타악기

#### 실로폰



조율된 목제의 음판을 길고 두꺼운 차례로 틀 위에 배열하고 그것을 채로 쳐서 울리는 악기이다. 오늘날의 실로폰은 피아노의 건반과 마찬가지로 위아래 2단으로 되어 있어 반응계가 자유롭다. 실로폰은 관현악에서 특수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독주로도 널리 사용된다.

#### 글로켄슈필



나무 조각 대신 금속제의 음판을 조율해서 실로폰과 마찬가지로 배열한 악기이다. 타악기 비브라폰의 전신으로 금속성의 맑은 음색을 지니며 관현악에도 널리 사용된다. 음향의 제약 때문에 3옥타브 정도가 한계이며, 고음과 저음에 난점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실로폰은 정확하게 말하면 ‘글로켄슈필’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로



중남미에서 사용되어 온 원시 악기로 표주박을 말려서 속을 파낸 후 표면에 얇은 흙을 내서 사용하는 타악기이다. 쿠바 음악에서는 빠지지 않는 악기이며,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로 문질러 연주한다. 표주박 대신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하여 만든 것은 ‘레코레코(reco-reco)’라고 한다. 또 한 거친 흙과 가는 흙 두 종류 흙을 파서 속에 작은 알갱이를 넣은 멀티 귀로도 있다.

#### 탬버린



원형의 얇은 목제 테두리에 한쪽 면만 가죽을 씌우고 테두리에는 10개 정도의 작은 심벌즈가 달린 타악기이다. 이집트, 그리스 시대부터 무용수가 손에 들고 치거나 잘게 진동시켜서 연주했다. 스페인 등의 민족 악기로서 독특한 울림을 지니고 있으며 관현악에도 흔히 사용된다.

#### 캐스터네츠



명칭 그대로 밤(Castana; 스페인 어)을 두 개 맞붙인 듯한 1쌍의 나무쪽으로서, 안쪽이 움푹 패여 있고, 각각의 끝을 끈으로 결합한 악기이다. 무용수가 손가락에 끼고 연주하는 스페인의 민족 악기이다. 관현악에서는 연주하기 편하도록 자루 끝에 악기를 붙인 것이 사용된다.



## 트라이앵글



금속제의 둥근 봉을 거의 정삼각형으로 구부린 악기이며 이것을 금속제의 봉으로 쳐서 올린다. 예리하고 투명한 음색은 독특한 음향 세계를 창조한다.

## 작은북



큰북과 매우 비슷하지만, 절반 정도 크기의 타악기이다. 한쪽 면만 치게 되어 있으며, 아래쪽 면에는 2~10개 정도의 거트 현 또는 금속 현이 달려서 그 진동으로 상쾌한 음이 난다.

## 큰북



지름 약 60~80cm의 원통 양면에 씌운 가죽을 하나의 채로 치는 타악기이다. 깊이 있고 힘찬 음으로 박의 기초를 정하는 중요한 악기이다.

## 소리 막대



한 쌍의 나무 막대를 부딪쳐서 연주하는 타악기로, 라틴 음악에서 리듬의 축을 유지하는 중요한 리듬 악기이다. 길이가 20~25cm에 지름이 2.5~3cm인 한 쌍의 나무 막대형 악기로 주로 자단(紫檀), 흑단(黑檀)나무로 제작하나 현대에는 유리 섬유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 핸드벨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소리를 내는 종 모양의 악기로 도~높은 도까지 8음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비슷한 악기로 터치벨, 코끼리벨, 라운드벨, 벨플레이트 등의 악기가 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악기이다.

## 우드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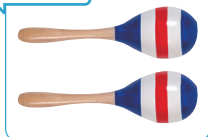
나무로 된 리듬 악기로, 흠이 있는 경우 위, 아래로 굽거나 막대 블록을 치며 연주한다.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막대 블록에서는 서로 다른 톤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가 쉽다. 오르프 악기 중 하나로 유아, 초등 교육용 악기로 많이 사용된다.

## 심벌즈



지름 40cm 정도의 금속제 원반으로서 보통 2장을 1세트로 해서 마주치거나 1장을 채로 치는 타악기이다. 또 취주악이나 재즈 음악에서는 꼭 필요한 악기의 하나이다.

## 마라카스



마라카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래한 타악기로, 손으로 흔들어서 연주하는 래틀(Rattle) 또는 셰이커(Shaker)의 일종이다. 비어 있는 둥근 울림통 속에 작은 알갱이를 넣어 만들며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리듬 패턴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리듬 악기이자 댄스 앙상블의 필수 악기이다.

출처 안정모, “실용음악통론”, 삼호출판사, 1991, 294~295쪽.

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출판사, 2002, 31쪽.